

‘마을아르페’(Community Archpe) 시론 - 마을 차원의 “책, 기록, 역사 그리고 치유와 창업의 커뮤니티”를 위한 제안-

이 영 남*

1. 왜?
2. 어떤 곳일까?
 - 1) 마을아르페의 정의와 접근방법론
 - 2) ‘문화적 토양을 풀무질하는 풀무간’
 - 3) ‘이질적 풀무간’
 - 4) ‘여성적 풀무간’
3.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1) 새로운 마을운동의 구심점
 - 2) 인문적 삶의 구심점
4. 시사점은 무엇인가?

[국문초록]

마을아르페(Community Archpe)는 <책, 기록, 역사 그리고 치유와 창업의 풀무간>이다. 마을아르페는 한 마을의 중심적 위치에

* 대통령기록관 학예연구관

서 개인과 마을의 문화적 토양을 풀무질하는 곳으로 일종의 ‘복합문화공간’ 또는 ‘커뮤니티 센터(community center)’에 가깝다. 예컨대, 마을아르페는 마을도서관, 마을기록관(마을아카이브), 마을역사관(community historical center), 마을치유센터(community recovery center), 마을창업센터(community commencement of an enterprise center) 등을 포괄할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한 개인과 마을의 문화적 토양을 가꾸기 위해서는 국가 단위의 거대 규모의 시설과 전문적인 시스템보다는 마을 단위의 작은 도서관, 작은 기록관(archives), 작은 역사관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마을아르페는 몇 가지 지향점의 좌표점에 위치한다. 첫 번째 지향은 ‘이질적 풀무간(heterogenous smithy)이다. 마을아르페에게 이질성은 생명의 문제이다. 두 번째 지향은 ‘여성적 풀무간’(feminine smithy)이다. 기록(archives)과 역사를 통해서 한 인간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지지하는 맥락의 치유가 이루어진다면, 마을아르페는 문화적 치유(recovery)의 커뮤니티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마을아르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새로운 마을운동의 중심점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인문적 삶의 중심점이 될 것이다. 분명히 마을아르페는 마을 중심에 있으면서 사람들 삶의 문화적 토양이 되고 마을역사와 마을문화의 풀무간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아르페는 사람들의 삶에 적지 않은 변화를 몰고 올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을아르페가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자. 마을아르페가 기록학계에 던져주는 시사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공공기록법과 대통령기록법에 언급되어 있지만 요원한 일로 비취지는 개별대통령기록관(Presidential Archives)과 기초자치단체 기록관(archives), 기타 공공기관 기록관의 대안이 될 것이다. 기초자치단체 기록관의 경우도, 공공도서관, 박물관, 기록관 등을 마을아르페 개념으로 추진하면 가능할 것이다. 둘째,

기록학관리 분야 종사자들(대학원생, 졸업생 등도 포함)에게 진로를 모색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기록관리분야에는 다양한 지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복합적인 마을아르페는 기록관리 종사자들에게 새로운 영역이 될 수 있다.

국가 단위의 거창한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되지 않더라도, 마을아르페는 평범한 사람들의 작은 행복에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마을아카이브, 대통령기록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작은도서관

1. 왜?

지금 한국사회는 경제적 욕망이 사회의 거의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있으며 문화적 토양은 척박하기 이를 데 없다. 전통적 마을은 해체되어 인간적 삶에 필요한 전통적 커뮤니티는 마음의 추억으로만 남아 있다. 그렇다고 농촌마을이나 대도시에서 대안적 커뮤니티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다. 이렇듯 20세기의 급격한 근대화를 건너 우리는 지금 21세기의 해안에 도달해있다. 이 해안에서 우리는 또 다른 여정을 떠나야 할 것이다. 지난 20세기를 관통한 ‘근대화 오디세이’가 아닌 또 다른 여정, 그러니까 ‘어떤 오디세이’를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여정을 떠나기 전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다. 그것은 삶이란 무릇 과거의 것들을 껴안은 채 새로운 것들을 기약하는 형이상학적 지향으로 다가온다는 점이다. 19세기의 전통적 삶도 아니고 20세기의 근대적 삶도 아닌, 그러나 그런 역사적 경험들과 결코 유리될 수 없는 미래의 삶을

21세기에 펼쳐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마을아르페’를 주목해야 하는 지점이 여기이다.

마을아르페를 두고 무언가를 위한 전부라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마을아르페의 여정에는 초월이나 단절이 아닌 포월의 지향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포월(包越)은 ‘껴안고 넘어선다’는 뜻을 함의한다. 역사적 삶은 단절이나 초월이 아니라 껴안고 넘어서 문턱을 넘는 여정이 아닐까? 마을아르페는 역사적 경험을 껴안은 채 새로운 것들을 기억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한국 기록관리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두 개의 커다란 여울목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는 1999년의 공공기록물관리법 제정·시행 국면이며 또 다른 하나는 2004년의 기록관리 혁신 국면이 될 것이다. 분명히 이들은 국가기록 관리체계를 질적으로 도약시킨 중요한 사건들이었다. 이 두 사건을 굽적하게 관통했던 것을 꼽으라면, 우선 ‘절차적 민주주의’를 꼽을 수 있겠다. 통상 기록관리는 투명성과 설명책임성(accountability)을 강조한다. 한 국가의 민주주의를 재는 척도로 국가기관의 투명성과 설명책임성은 간과할 수 없는 조건임에 틀림이 없다. 이런 점에서 지난 10년 동안 기록관리가 이 둘을 추동의 명분이자 발전의 자양분으로 삼았던 전략은 적합했던 선택이었다. 또 하나 굽적하게 관통했던 흐름을 꼽으라면, ‘역사를 위한 영구보존과 정보활용을 위한 열람서비스’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얼마나 활성화되었는가 하는 것은 별도의 논의에서 다룰 필요는 있겠지만, 역사연구 자료와 정보콘텐츠는 기록의 구체적인 유용성을 논할 때 부인할 수 없는 요소이다. 기록관리는 최근 이 방면에 주목하고 있으며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있다. 이처럼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면 기록관리는 분명 이전에 비해 괄목한 성장을 거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고 싶은 것이 있다. 기록관리의 성과를 포월하면서 기록의 울타리를 넓히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물음을 던지

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기록관리 역사 10년이 공공성의 미명 하에 ‘국가기관 편향적 기록관리’로 경도된 것은 아니었는가, 그래서 민주주의, 역사, 정보활용 등의 소중한 가치를 편벽되게 가꾸어 왔던 것은 아니었는가? 아마도 이런 물음에 대해 자신 있게 아니오라고 답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제는 국가기관 편향적 기록을 포월해 ‘개인과 마을의 문화적 토양을 풀무질하는 기록’을 지향해야 한다. 둘째, 그 동안 우리는 시급성이라는 미명으로 기록전문가 양성과정을 ‘공무원 직업교육’으로 획일적으로 운영하지는 않았는가, 그러니까 대학원 협동과정이나 단기교육 과정을 문헌정보학, 역사학, 기록학, 행정학, 법학 IT 분야의 다양성을 순환시켜 토양을 기름지게 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마찬가지로 이런 물음에 대해 자신 있게 아니오라고 답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제는 전문가 양성과정을 포월해 ‘인간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그의 삶을 지지할 수 있는 인문적 기록지식인’을 지향해야 한다.

인간은 지향하는 한 방향한다. 지나온 10년처럼, 앞으로 10년 동안 마을아르페로 방향을 거듭한다면 기록의 울타리는 넓어질 것이다. 맹자가 말했던 것처럼, 울타리가 넓어지면 가축을 굳이 매어둘 필요가 없으며 그만큼 우리는 자유로워질 것이다. 이제는 그 동안 걸어온 길들을 반추하며 오디세이를 떠날 때가 되었다. 날이 점점 어두워가니 더 지체하지 말자. 늦게 출발하면 깊은 산중에서 호랑이를 만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어떤 곳일까?

1) 마을아르페의 정의와 접근방법론

마을아르페(Community Archpe)는 <책, 기록, 역사 그리고 치유와 창

업의 풀무간>이다. Archpe(아르페)는 arche(아르케)와 pe(페)의 합성어이다. 아르케는 고대 그리스어로 어원은 지휘하다, 통솔하다, 장군 등에서 유래했다. archives의 어원이 되는 라틴어 archeion의 기원도 아르케이다. 한편 pe는 영어권에서 토양(土壤)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로 쓰인다. 다만, 단독으로 토양의 뜻을 나타낼 때는 soil이란 단어가 주로 사용되기도 한다. 결국 이런 조합들을 풀어서 설명하면, 마을아르페(Community Archpe)란 한 마을의 중심적 위치에서 개인과 마을의 문화적 토양을 풀무질하는 곳을 이른다.

물론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마을아르페는 일종의 ‘복합문화공간’ 또는 ‘커뮤니티 센터(community center)’가 될 것이다. 예컨대, 마을아르페는 마을도서관, 마을기록관(마을아카이브), 마을역사관, 마을치유센터, 마을창업센터 등을 포괄할 수 있다. 영미권에서 커뮤니티 센터는 상기의 기능 외에도 마을행정, 마을학교, 마을정보센터, 마을장터 등까지 포괄하는 보다 복합적인 곳이라고 한다. 현재 한국의 상황은, 읍면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가 바뀌었지만 그것이 영미권의 커뮤니티 센터처럼 운영되지는 않는 것 같다. 주민자치센터 중에는 2층을 작은도서관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다고 하지만 그리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

마을아르페는 각 마을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체의 정체성이 강한 전통적 마을이나 작은 마을에 들어서는 마을아르페는 한 공간에 집결된 형태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마을, 예컨대 중소도시에 들어서는 마을아르페는 각각 기능이 분화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도 협력과 네트워크의 맥락에서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 만족할만한 모델로서 존재하는 마을아르페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향후 마을아르페가 활성화될 경우 존재형태는 다양할 것으로 본다. 이 글은 전자 위주의 마을아르페를 설명하겠지만 후자의 가능성

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앞서 언급한대로 중소도시 단위로 접근할 때는 후자가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을아르페에 대한 보다 자세한 것은 후술하겠지만, 어떤 형태이든 한 마을의 문화적 토양을 가꾸기 위해서는 마을아르페가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

마을아르페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접근방법론이 필요하다. 첫째, 주거환경과 새로운 마을운동의 거시적 맥락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신도시 개발, 아파트단지 조성과 같은 방식은 물론이고 새로운 공동체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마을만들기, 생태마을만들기, 슬로우시티와 같은 대안적 삶을 모색하는 마을운동에서도 마을아르페는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이 점은 ‘새로운 마을운동의 구심점’이라는 개념으로 상술할 것이다. 오늘날 일산, 분당 등과 신도시를 보면 상업지구가 도시 중심을 장악하고 있다. 일산을 지을 때 모델로 삼았던 것은 영국의 전원도시(garden city)였다고 한다. 전원도시는 일종의 ‘도농복합도시’이다. 전원도시 개념을 창안하고 1899년에는 전원도시협회를 창설해 전원도시 설립운동을 주도한 사람은 영국의 에벤에저 하워드(1850-1926)였다. 19세기 말 영국은 산업화 여파로 빠른 속도로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각종 도시문제가 생기고 농촌은 농촌대로 황폐해져 가는 상황이었다. 20세기 하반기 한국의 상황과 너무도 유사하지 않은가. 아무튼 하워드는 이런 시점에서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은 도시기능과 농촌기능, 그리고 녹지가 어우러진 소규모 도시라고 보았다. 전원도시는 외부는 농업지구로 내부는 도시기능(타운)으로 설계가 되었다. 여기서 도시내부의 타운은 상업지구가 중심이 되는 곳이 아니다. 말하자면 도서관, 박물관, 공연장 등의 문화시설이 들어서면 문화지구가 중심이 된다. 상업지구는 산업지구와 함께 도심 한복판의 문화지구와 도시 외곽의 농업지구 사이를 잇는 곳에 배치된다. 그리고 도시는 전체적으로 녹지로 횡단이 된다. 말하자면 도시는 폭이 2킬로미터나 되는 녹지로 반분되어 마치 두 개의 도시로 나뉘는 것과 같은 착

각을 일으킬 정도라고 한다. 하워드는 생전에 레치위스나 웰린과 같은 이상적인 전원도시를 실제로 설립했다.

이런 전원도시를 모델로 삼았다는 우리의 신도시 일산은 지금 어떤가. 지금 일산을 가보면 중심에는 휘황찬란한 네온사인인 점령한 상업 지구가 중심이다. 자족적인 도시는커녕 베드타운이라는 오명을 듣기도 했다. 비단 일산만 그런 것은 아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거대도시이든 신도시이든 지방 중소도시이든 한국의 도시에는 상업지구가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상업적 토양을 풀무질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농촌은 정반대의 측면에서 암울하다. 거의 피폐화가 되었기 때문이다. 지금 농촌에 과연 문화는커녕 경제나 상업지구가 들어선 곳이 있을까? 교육시설조차도 대규모 경제논리에 밀려 문을 닫는 학교가 늘어나지 않는가.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 ‘역설’을 발견하게 된다. 1970년대에 국가가 주도했던 새마을운동은, 농촌을 살려 ‘새로운 마을’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전통적 농촌마을을 해체시켰을 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새마을운동은 마을문고운동을 벌였고 마을 중심에 마을회관을 두었다. 새마을운동의 실제 내용에 대한 세밀한 평가를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상징적인 차원에서만 본다면, 새마을운동은 차라리 고전적이었다. 마을문고운동을 마을도서관운동으로, 마을회관을 ‘복합적 문화공간’이나 ‘커뮤니티 센터’로 확장한다면 고전적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새마을운동에 대한 종합적 분석은 별도의 영역이다). 이런 맥락은 ‘문화적 토양을 풀무질하는 풀무간’과 ‘이질적 풀무간’이라는 개념으로 상술할 것이다.

둘째, 포월의 역사적 관점을 견지해야 한다. 기록관리 10년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기록관리학계는 고도의 전문성과 무수한 다양성, 그리고 10년의 기록관리 경험이라는 소중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룩한 전문성과 다양성을 왜 굳이 국가기록관리에만 썬야 할까? 마을기록관리를 위해서도 소중한 경험일 것이다. 비록 국가에 필요한 것

들을 탐색한 후 마을기록관리에 적용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마을아르페 수립과 운영에 적용한다면 효율적 방법론이 될 것이다. 아울러 도서관의 경험과 전문성, 역사학의 경험과 전문성, 그리고 IT의 기술적 축적을 포월의 관점에서 이끌고 들어간다면, 마을아르페야말로 미시적 차원에서 고차원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기록학과 문헌정보학, 그리고 역사학, IT, 행정학 등의 다양한 배경을 가진 기록관리 세계에서도 마을아르페에 관심을 가지기를 바란다. 셋째, 슈마허(E.F. Schumacher 1911-1977)의 중간기술 개념이 유효하다. 이 개념은 앞서 설명한 거시적 관점과 역사적 관점을 포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슬로건으로 널리 알려진 경제학자 슈마허는 자본중심의 경제가 아닌 인간중심의 경제를 표방했다. 그는 특히 개발도상국에 깊은 관심을 보였는데, 이런 개발도상국에 필요한 것이 바로 ‘지역 차원의 중간기술’이라 보았다. 중간기술이란 선진국의 자본경제에 적합한 1000파운드의 대량생산 하이테크 기술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을 더 절망적인 상태로 몰아가는 전통적인 1파운드짜리 기술도 아닌, 말하자면 그 중간범위인 100파운드의 기술을 의미한다. 100파운드 기술은 특히 사람들의 반응이나 잠재능력을 주요한 요소로 삼는다. 슈마허는 1970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전 세계 20억 농촌인구와 2백만 농촌마을에 적합한 기술로 중간기술을 제시하면서 “게으른 사람은 아무 것도 하지 못하지만 불품없는 장비라도 이용하는 사람은 생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지금 기록관리는 점점 고비용의 하이테크 기술로 진화하고 있다. 그러나 묻고 싶다. 우리가 마을로 눈을 돌려 ‘마을기록관리’를 할 때도 과연 이런 고비용의 하이테크 기술을 적용할 수 있겠으며, 기록관리전문가로서 순수하게 기록만 관리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지난 10년 동안 이룩한 성과와 단절한 채 나아갈 이유는 없다. 슈마허도 중간기술 습득방법의 한 가지로 최신키술에서 출발해 중간기술 요구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개

조하는 방법도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마을아르페를 실제적으로 운영하는데 중간기술 개념은 유효할 것이라 생각한다.

개인의 삶의 토양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도 마을아르페가 핵심적이다. 한 인간의 삶에서 책, 기록, 역사만큼 소중한 것도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특히 현대인은 내면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으며 하고 싶은 것은 밥벌이의 지겨움을 참아가면서 억지로 직장을 다니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점이다. 국가차원의 자본주의 시스템에 포획되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더라도 마을차원의 새로운 시스템에 안착해서 살아가려면 치유와 새로운 창업의 길이 필요할 것이다. 마을아르페는 이런 치유와 창업의 풀무질을 담당하는 곳이 될 수 있다. 이런 맥락은 ‘여성적 풀무간’이라는 개념으로 상술할 것이다. 이제는 <책, 기록, 역사 그리고 치유와 창업의 커뮤니티>인 마을아르페에 관심을 가져보기를 제안한다. 이 글은 아직까지는 시론에 불과한 짧은 글이다. 앞으로 구체적인 방법론 개발, 사례연구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

2) ‘문화적 토양을 풀무질하는 풀무간’

토양(soil)은 식물에 영양을 공급하여 자라게 할 수 있는 흙을 말한다. 토양에는 수를 헤아리기 어려운 미생물들과 지렁이 등의 다양한 토양생물이 산다. 이들의 삶을 통해 지구상 생명현상의 근원이 가능하다. 인간에게 필수적인 의식주 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도 토양생물이다. 따지고 보면 인간의 삶은 물질적 삶으로만 영위되지 않는다. 문화적 삶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문화적 토양’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문화적 토양의 범위에 무엇이 들어갈 수 있을지는 더 검토해야 할 과제이지만, 적어도 책, 기록, 역사는 포함되지 않을까 싶다. 책이 없는 세상은 지식이 없는 세상이다, 기록이 없는 세상은 정보활용과 기억의 영구화가 불가능한 세상이다, 역사가 없는 세상은 과거-현재-미

래를 동시에 살아가는 존재로서 인간이 출현할 수 없는 세상이다. 일단 이 정도로 문화적 토양을 잡아보자. 그렇다면, 토양을 만드는 토양 생물처럼 우리 삶의 문화적 토양을 위한 곳이 필요할 것이다.

이제는 대부분 자취를 감추었으나 1970년대 들어 새마을운동이 본격화되기 전까지만 해도 웬만한 마을에는 풀무간이 있었다. 오랜 세월 마을의 중심에 자리 잡고 녹슨 쇠를 녹여 낫, 호미와 같은 쟁기를 만들던 곳이었다. 그러나 대량생산 체제인 공장과 기계화의 발달로 우리 곁에서 사라져 버렸다. 비단 풀무간의 운명만 그런 것은 아니다. 근대화의 미덕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적 삶에서 도서관과 독서문화, 그리고 기록관과 기록문화는 척박하기 이를 데 없기 때문이다. 역사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일기를 쓰듯이 자신의 삶을 역사로 풀어내는 문화가 우리에게서 무척이나 생소하다. 그리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마을에서 성장하면서 역사를 배우는 학생들이 정작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은 잘 모르면서 국가의 역사부터 배운다. 이런 것들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역사는 국가와 사회의 역사이지 한 개인의 역사와 마을의 역사는 아니었던 셈이다. 그 옛날부터 마을의 중심에서 쟁기를 만들던 풀무간처럼, 다시금 마을의 중심에서 문화적 토양을 일구는 마을아르페가 필요하다.

물론 역사관(메모리얼 센터, 편찬위원회, 박물관 등), 도서관, 기록관 등이 없다는 것은 아니며 그에 부합되는 문화가 없다는 것도 아니다. 국가나 중앙의 거시적 차원에서 보면 독립기념관, 대학박물관, 중앙박물관과 지방분관, 국사편찬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편찬위원회 등이 역사관은 전국에 산재해 있다. 또한 중앙도서관,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 등은 전국 어디에서도 볼 수 있고, 이제 기록관도 서울, 부산, 성남 등지에서 건물로 확인할 수도 있다. 문제는 이런 시설과 시스템이 우리의 일상적 삶에 얼마나 밀착되어 있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 도서관 분야의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설립운동, 기록관 분야의 시군구 기

록관 설립 움직임, 해당 학교가 소재한 마을의 역사를 공부하려는 역사교사들의 노력 등은 미시 세계에서는 거시적 차원의 접근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함의할 것이다.

그렇다. 한 개인과 마을의 문화적 토양을 가꾸기 위해서는 국가 단위의 거대 규모의 시설과 전문적인 시스템보다는 마을 단위의 작은 도서관, 작은 기록관, 작은 역사관이 절실하다. 소설가 공선옥의 주장처럼, “동네 주민들이 저녁이면 서점으로 산책을 나와 공동체의 문제라든가 문학, 영화 이야기를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책 한 두 권 사서 집으로 돌아가는 평화로운 풍경이 일상화가 된다면 … 시골 사람들이 논밭을 오가며 책방에 들러 책을 사고 책을 읽는 모습을 상상하면, 오래 천대받던 내 영혼이 비로소 귀한 대접을 받는 느낌”이 있으려면 문화적 삶을 영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소망은 평범한 사람들의 작은 행복에 닿아 있다.

논의를 더 진전시켜 보자. 미시 세계는 바둑판 모양의 격자세계(格子世界)보다는 이질적인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이질적 세계이다. 그렇다면 전문성의 차원에서 애써 이것들을 구분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전문성이 섞이는 책·기록·역사, 그리고 치유와 창업의 커뮤니티를 지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싶다. 명칭이야 마을도서관이라 하든, 마을 아카이브라 하든, 또는 마을역사관이라 하든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문화적 토양인 책, 기록, 역사를 일구는 시스템(공간, 적정기술, 사람들, 물리적인 책·기록·역사유물 등)을 더 유기적·순환적으로 만드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이질적 존재들의 공존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 분야별로 각각 접근하는 것보다는 어느 한쪽이라도 먼저 제안을 하고 유기적인 시스템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작은 도서관이 따로 서는 것보다, 읍면동 기록관이 따로 서는 것보다, 역사자료실이 따로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이 어우러진 마을아르페가 마을 중심에 들어서는 것이, 우리

의 문화적 토양을 기르는데 더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3) ‘이질적 풀무간’

마을아르페는 ‘이질적 풀무간’을 지향한다. 앞서 미시 세계를 언급한 바도 있지만, 우리의 몸에는 이질적인 요소들이 접혀져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몸이 성립되고 유기적으로 작동될 수 있다. 개인의 생애란, 또는 살아간다는 것은 원하지 않더라도 이질적인 것들이 경험으로 층위를 이루며 무한히 포개지는 어떤 것이다. 인류의 문명사는 이질적인 것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외연이 넓어지고 속으로 조밀해진 역사이다. 이제 시작되는 마을아르페 역시 이질적 풀무간의 개념으로 오디세이에 나서야 한다. 기왕이면 이질적인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지는 말자.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접근하지도 말자. 이질성은 더 선호하는 것을 선택하는 차원이나 전술 전략의 차원에서 접근할 성질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을아르페에게 이질성은 생명의 문제이다.

잠시 관행농업과 다른 길을 걸으며 유기농업이 살아온 길을 떠올려 본다. 오늘날의 관행농업은 화학비료, 제초제 등에 의지하며 대규모 농지에서 단작농업을 한다. 거대한 시장에 내다팔기 위한 현금작물(사탕수수, 커피, 밀 등)을 대량생산하기 위해 구축한 체계가 관행농업인 셈이다. 반면 유기농업은 단작 대신에 이질적 생물을, 화학비료 대신에 유기비료나 생물비료를, 제초제 대신 인간의 몸이나 동물을, 합성 살충제 대신에 생물학적 조절을 시도한다.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질성이다. 1989년 당시 관행농업을 하던 쿠바는 전체 농지의 60%를 사탕수수밭으로 채웠으며 사탕수수를 대량생산했다. 이렇게 생산된 설탕은 세계 설탕무역의 7.4%를 차지했다. 쿠바는 사탕수수를 팔고 밀, 쌀, 옥수수, 콩 등 매일 먹는 식량을

쌌다. 그러나 사회주의권이 무너지면서 교역체계가 교란되자 쿠바에는 식량위기가 닥치자 이런 관행농업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쿠바는 유기농업으로 대대적인 전환을 시도했다. 예컨대, 작물의 다양성의 경우 설탕수수밭에 간작(間作)으로 옥수수과 콩, 옥수수와 질경이 등을 심는 방식을 선택했다. 자연주의 마을로 널리 알려진 인구 20만의 영국 토트네스(Totnes)는 1970년대에 광우병으로 농가가 몰락하는 등 파동을 겪으면서 유기농업으로 전환하여 현재는 마을에서 필요한 소비량의 99%를 충당한다.

이질성은 한국에서 ‘유기농업의 메카’라 할 수 있는 충남 홍성군 홍동면에 가보면 더 실감이 난다. 작물의 다양성을 넘어 생물의 다양성까지 확대되기 때문이다. 어떤 논에 가보면 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리도 살고 연꽃도 산다. 오리가 논에 있는 것은 해충과 풀을 먹고 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연꽃은 무엇일까? 거꾸로 학교 교정의 화단에는 명색이 ‘花壇’인데 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농작물이 함께 있다. 다양한 꽃으로 아름답게 수놓아진 화단에는 흥미롭게도 우리가 먹는 것들도 함께 자라고 있다. 새로운 차원의 이질성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유기농업은 이질성에 의지하여 때로 관행농업에 저항하고 때로 그것을 따돌리며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있다. 어느 덧 유기농업은 ‘이질적 농업’을 운명으로 맞이했다.

천박한 자본주의가 광풍을 일으켜 우리를 질식시키는 곳에서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 등을 바라본다. 이들은 지금 효율과 생산성을 내세운 규모의 경제에 갇혀 있다. 설령 국가 단위에서는 웅장한 기록관이거나 도서관이 각각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마을에서도 그래야 할까? 동의하지는 않지만 설령 국가 단위에서는 동질적인 규모의 경제가 적용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마을 단위에서는 이질적인 규모의 경제가 요청된다.

문화관광부에서 2006년 2월에 대통령에게 보고한 ‘공공도서관 정책

현황과 발전방향'을 보면 흥미로운 내용이 등장한다. 이 보고서는 '대형위주 단독시설'의 현황을 비판하고 '대형, 소형,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말하면서, 이에 대한 실천과제의 하나로 <작은 도서관>을 제시했다. 생각 같아서야 읍면동 단위까지, 아니 그 보다 더 아래의 마을까지 근사한 공공도서관을 설립해 운영하고 싶고 이는 누구나 바라는 바일 것이다. 그러나 규모의 경제에 닫히고 정책과 예산에 기대는 순간부터 그것은 불가능한 꿈이 된다.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소규모 지역에서 운영될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을 확충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국가도서관 시스템'에 포섭된 작은 도서관의 운명은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다. 보고서 19쪽의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서비스 체계도'는 중앙도서관을 피라미드의 정점, 공공도서관을 중간에, 작은 도서관을 맨 아래에 배치된 구조로 되어 있다. 흡사 새마을운동 시기에 내무부를 정점으로 마을 단위까지 수직적으로 구축된 피라미드를 보는 것 같다. 단지 그림일 뿐이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국가의 지원이 없이 어떻게 작은 도서관이 운영될 수 있겠는가 말하고 싶겠지만, 장서량이 작은 것이야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상호대차가 대안임을 말하고 싶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대형위주 단독시설의 문제점을 심화시킬 수 있다. 적어도 작은 도서관의 본래 취지에는 닿지 않으므로 작은 도서관을 국가도서관 시스템에서 풀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전남 광양시 진상면 청암리에는 <농부네 텃밭도서관> (<http://cafe.daum.net/nongbuc>)이라는 '마을도서관'이 있다. 한 농부가 27년 전 500권으로 마을문고를 열었으며 한 때는 1987년부터는 경운기에 책을 싣고 다닌다고 해서 경운기 이동도서관으로 불리기도 했다. 세월이 흘러 세상 사람들이 새로운 것이라 주목할 때쯤에 이르자 장서량이 1만 8천권으로 늘었다. 이 도서관은 국가도서관 시스템 바깥에

서 존재하지만 굳이 말하자면 작은 도서관에 해당한다. 그러나 장서량만 보면 작은 도서관이라 말하기는 힘들 것 같다. 2006년 12월 중앙도서관에 제출된 ‘작은 도서관(문고포함)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라는 연구용역보고서를 보면, 2005.12.31 현재 전국의 작은 도서관 장서보유량 평균은 3,287권이다. 모범사례로 제시된 부천시의 작은 도서관 11개 평균도 2006년 4월 현재 약 7,000권이다. 장서량을 비교하기 위해, 그것으로 우열을 가리기 위해 통계를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통계 너머에 있는 것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농부네 텃밭도서관에는 ‘농사꾼이자 사서’인, 또는 ‘사서이자 농사꾼’이 사람이 책을 읽으러 온 사람들과 음식을 나눠먹는다. 외지에서 부모와 함께 온 아이들이 잠을 자고 가기도 한다. 이렇듯 잔치가 자주 벌어진다. 시에서 도서관 앞에 있는 산에 폐타이어 조각로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면서 환경을 훼손하자 이번에는 사람들과 힘을 모아 조각로 건설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책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 아닌가. 이 도서관은 단순히 공부하는 열람실도 아니고 책만 읽는 공간도 아니다. 광화문의 촛불이 문화였듯이 이곳도 문화공간이다. 전문 연구자들이야 당연히 상호대차와 같은 시스템과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사서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무수한 자료를 찾아다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일상적 삶에서 과연 그런 복잡한 체계가 굳이 필요할까? 우리에게서 오히려 농부네 텃밭도서관과 같은 ‘마을도서관’이 요청된다. 이질적인 것들이 어울리는 문화공간이야말로 인간의 지적인 삶에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든다.

작은 도서관은 작은 도서관대로 설치되고 ‘문화공간’은 또 따로 만들면 될 것이 아닌가. 물론 그럴 수 있으며 그것도 가능한 하나의 방식이다. 그러나 그것은 거대한 국가도서관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결국 관행농업의 대규모 단작생산의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든다.

향연이라 번역되는 심포지엄은 ‘함께 먹고 마신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펼치는 오늘날의 심포지엄에는 이런 뉘앙스가 거의 탈색되었지만, 고대 그리스의 현자들은 심포지엄에 살고 심포지엄에 죽었다고 할 정도로, 그들은 밤이면 밤이 새도록 먹고 마시면서 대화를 즐겼다. 근엄한 곳에서 공부를 한 후에 뒷풀이 장소로 이동해 먹고 마시며 하지 못한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은 아니었다. 그들은 심포지엄-저녁식사에서 공부했고 먹고 마셨다. 그들은 강의실, 뒷풀이 장소, 2차-3차 등으로 삶을 잘게 쪼개어 격자화하지 않고 심포지엄-저녁식사에서 삶 그 자체를 즐겼다. 소크라테스의 대화편을 읽어보면 이런 장면이 잘 나온다. 심포지엄에 가장 철저했던 이가 소크라테스였다. 그는 폴리스를 사랑했던 여느 아테네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즐겁게 먹고 마시면서 밤이 새도록 대화를 이어갔다. 오늘날 교과서적인 철학사 책은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에서 철학을 출발시킨다. 이 말은 결국 향연에서 철학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아닌가. 그리스 폴리스에서 향연(symposium)이 펼쳐지며 철학이 태동했듯이, 마을마다 향연이 펼쳐진다면 우리를 ‘인문적 삶’으로 인도하지 않을까.

‘인문적 삶’은 모름지기 이질적인 것들로 채워져야 한다. 앞에서 관행농업의 단작을 유기농업이 작물의 다양성과 생물의 다양성으로 대안을 마련했다는 점을 말한 바 있다. 기왕에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면, 인간이 재배하는 작물에 한정된 다양성보다는 오리, 연꽃, 벼 등의 이질적인 생물들이 어울린 다양성이 더 낫지 않을까. 우리가 선택하고 추구할 것이 있다면 이질적 다양성이 아닐까 싶다. 마을아르페는 이 지점에서 태동할 수 있다.

다소 이상적이며 모든 마을아르페가 꼭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래의 그림은 이질적 풀무간을 지향한다면 검토해볼만 하다.

[이질적 풀무간]

국가		마을
장터	유기농 음식과 재활용 물품	마을아르페
공원	서울숲, 용산공원 ...	
도서관	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	
기록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	
기념관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	
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	
역사편찬	국가편찬위원회, 대학의 역사편찬위원회 ...	

마을아르페는 작은 풀무간을 지향하며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명제를 수용해 몸에 맞는 단백질로 변모시킨다. 그러나 더 생각해볼 것이 있다. 미시 세계에는 이질적인 것들이 쟁여져 있으며 이것들이 어울려 살아간다. 미시 세계의 역동성을 통해 우리는 생명이란 무릇 이질적인 것들이 다양성을 이룰 때 가능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마을아르페는 ‘작은 풀무간’을 지향하되 태산이 되어야 한다. 태산은 바위, 흙, 풀, 나무 등 이질적인 것들이 모여서 형성이 되었다. 이질적 풀무간을 지향한다면 마을아르페는 태산이 되어야 한다. 물론 형용모순이긴 하지만 ‘작은 태산’이라는 범주 안에서 그러하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건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2008년 7월에 충남 홍성군 홍동면에 세워진 ‘패시브 하우스’ 개념으로 짓는다면 보다 다양한 건물들로 분산될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민 단체에서 만든 이 통나무집은 에너지 90%를 아낄 수 있을 정도로 획기적이다. 패시브 하우스는 안에서 밖으로 새는 열을 철저히 막으면서 실내는 환기를 통해 깨끗한 공기를 유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이나 기록관 서고에 설치하는 공기조절 및 온난방 시설이 없어도 시원하고 따뜻하다. 기록을 남기는 위대한 작업도 책을 보는 지적인 일들도 ... 환경을 파괴하면서 이루어지는 방식이라면 과연 후세의 역사가

들은 무엇이라 말할까?

여러 건물로 분산되더라도 일정한 지역에 모여 있어야 한다. 판교 국가기록원에서 기록을 보고, 차를 타고 서초동에 있는 중앙도서관으로 이동해서 책을 보고, 차를 타고 용산에 있는 중앙박물관으로 이동해서 유물을 보고, 다시 차를 타고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 가서 공연을 보는 것 … 환경에 위대한 것과는 별도로 효율적이지도 못하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들이 서울시청 광장 주변에 포진해 있다면 사정이 달라진다. 시청 정도에서 기록을 보고, 걸어서 지척에 있는 프레지던트 호텔 정도에서 책을 읽고, 걸어서 롯데호텔 정도에서 유물을 보고, 시청광장 한 편에 있는 유기농 장터에서 향연도 베풀고 저녁거리도 살 수 있다. 그리 피곤하지 않은 삶이다. 요컨대, 여러 건물로 분산되더라도 걸어가 닿을 수 있는 곳에 포진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배치구조는 이미 오래된 역사적 연원을 가지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 있는 19세기 말 영국에서 태동한 전원도시를 다시 살펴보자. 이러한 고전적 도시 개념은 여전히 생명력이 있어 한국에서도 일산과 같은 신도시의 모델이 되기도 했다. 정원도시는 도시기능과 농업, 녹지가 어우러진 도농복합도시를 지향하는 도시이다. 18~19세기 산업혁명 와중에 영국에서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문제가 심각했다. 정원도시는 이미 진행되었던 도시화를 거부하지 않고 도시의 기능과 농촌, 녹지를 아우르려고 했다. 이 도시는 크게 세 개의 영역으로 구분된 방사형 구조인데, 제일 안쪽에 문화시설이 들어서고 중간에 상업, 경제시설이 들어서며 제일 바깥쪽이 농업지역과 녹지가 들어선다. 일산과 같은 신도시가 만약 이런 원리에 따라 그대로 지어졌다면 상업 시설이 도심 한 가운데 들어서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신도시를 설계할 때 이런 도시개념을 유지하고 제일 안쪽에 마을아르페가 들어선다면 제일 좋겠지만, 기존의 도시를 재배치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질적 풀무간을 지향할 때 마을아르페는 마을마다 들어설 수 있을 것이다. 현재처럼 동질적인 규모의 경제에 의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기존의 마을을 재편할 때, 또는 새로운 마을을 만들 때 마을 중심에 풀무간을 두고 충분히 즐기며 살아간다면, ‘인문적 삶’으로 인도되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4) ‘여성적 풀무간’

누구나 살면서 상처를 입고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경험을 한다. 이것을 막을 도리는 없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상처는 하루빨리 치유해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치료의 방법에는 병원이나 약품으로 고치는 의학적 치료(cure, healing)도 있겠지만 상담치유, 독서치유, 미술치유, 음악치유 등과 같은 문화적 치유(recovery)도 있다. 우리들은 모두 마음에 켜여진 상처를 치유하며 보다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한다. 도서관에서 시도되는 독서치유뿐만 아니라 이제는 기록치유, 역사치유도 시도해볼직하다. 심리치유에서 글쓰기는 치유법의 하나로 쓰이고 있으며, 한 사회가 역사적 치유를 하는 방법은 불행한 사건을 충분히 서술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마을아르페에는 책이 있고, 기록이 있고 역사가 있다. 기왕에 시도되는 독서치유뿐만 아니라 기록과 역사를 통해서 한 인간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지지하는 맥락의 치유가 이루어진다면, 마을아르페는 문화적 치유의 커뮤니티가 될 것이다.

사람들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싶어 한다. 밥벌이의 지겨움에서 벗어나 자신의 욕망을 펼치며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갈망한다. 전업주부는 물론이고 40대에 직장에서 나올 수 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직업은 단순히 경제적 맥락의 밥벌이가 아니라 자신을 실현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런 욕구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는 별개로 하더라도, 아무튼 우리

주변에는 실업상담, 기업취업과 일자리 상담, 창업상담 등 취업 및 재취업을 상담시설이 있으며 나름의 기능을 한다. 이런 상담에서 강조하는 것은 자신을 위치와 욕망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다. 진정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자신이 처한 현재 상황이 객관적으로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 알아야 적합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은 얼마나 자신을 알까? 아니 어떤 경로와 장치를 통해 알 수 있을 것일까? 도서관에는 전문사서가 있어 특정한 주제의 책(자료)을 찾을 때 도움을 주고 있다. 삶을 새롭게 설계하고자 할 때, 마을아르페의 마을사서가 그 사람에게 적합한 책(자료)을 찾아준다면, 또는 마을역사가가 개인의 삶을 역사적 삶으로 같이 서술함으로써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내가 대화할 수 있도록 조인을 해준다면, 또는 마을 아키비스트가 ‘생애주기기록’을 생산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이럴 때의 창업은 단순히 새로운 일자리를 얻는 과정이 아니라 삶의 재조직하는 과정이며 이런 맥락에서 적합한 직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마을아르페는 ‘여성적 풀무간’을 지향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여성이 더 이상 차별받지 않고 남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며 시작되었을지도 몰라도, 여성주의가 표방하는 여성적 가치를 여기에만 가둘 이유는 없다. 오히려 여성주의는 장애를 가진 사람과 비장애인이, 장애를 가진 사람과 장애를 가진 또 다른 사람이, 비장애인이 또 다른 비장애인과 ... 이렇게 이질적인 존재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지향할 때 보다 온전해진다.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보살피야 한다.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한 사람의 영혼임을 깨닫고 서로가 살아가는 모습을 인정하고 지지해야 한다. 국가가 아무리 크고 거대하고 복잡하다고 해도, 우주에 비견되는 한 인간보다 크지도 않고 거대하지도 않으며 복잡하지도 않다. 맑시즘이 군사독재 시절에 독재에 저항하는 근거였듯이, 여성주의도 살아가는 매 순간 우리를 외롭게 하고, 무가치한 것이라 폄하하고, 주변인으로 전락시키

는 것들에 저항하는 근거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주의 관점에 설 때라야 우리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상적인 것들과 개인적인 것들이 소중한 가치를 지닌 것임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기관의 업무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공적이며, 정책, 제도, 법률, 외교안보 등으로 불리지 않더라도 간직할만한 가치를 지닌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여성적 풀무간’이 될 때 이질적 풀무간로서 마을아르페가 소임을 다할 것이다.

마을아르페는 마을 사람들의 인문적 삶을 돌봐야 한다. 그것도 終身토록. 그렇기 때문에 그리 간단하지 않다. 마을아르페는 ‘편한 사랑방’이 아니다. 자유로운 것과 ‘편한 것’은 구별해야 한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사람은 치열하다. 기록관에서 기록을 보는 사람은 글자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긴장한다. 공연을 보면서 친구랑 잡담하는 사람은 없다. 소크라테스가 농짓거리로 대화를 나눈 것은 아니다. 타인을 돌보는 일이 간단할 리가 없음을 우리는 잘 안다. 마을아르페에서 벌어지는 일을 개인별 방법론에 근거해서 몇 가지 층위로 접근해보겠다.

마을아르페의 ‘마을사서’는 마을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지적인 삶을 나눠야 한다. 마을사서는 읽을 책을 같이 고를 것이다. 작가를 초대하고 독서캠프를 조직하고 다양한 책읽기 모임을 조직할 것이다. 마을연구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고 우리 마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필 것이다. 집에 서재를 만드는데 조언을 해줄 것이고 P2P 방식으로 집에 있는 책들이 ‘상호대차’될 때 네트워킹의 중심에 설 것이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을 것이며 보다 적합하게 원하는 책을 읽을 것이다. 불가능? 지역도서관으로 운영되는 서울 아현동의 중앙여고 도서관(<http://www.centerlib.org>)이나 일산동녘어린이도서관(<http://www.dongnyuk.org>) 등의 운영사례를 접하면 의외로 가까이 와 있음을 알 수 있다. 동네 슈퍼마켓에서 가게를 보면서

책을 읽고, 정육점에서 고기를 썰다가 짬이 났을 때, 야구루트를 배달하다가 도서관에 들러 책을 읽는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서로 용기를 주면서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나간다. 독서모임에 참여하면서 사서가 원하는 양서를 읽고 글을 쓰고 토론하면서 자신감을 얻는다. 마을 사람들은 문집을 엮으며 자신을 스스로 대견하게 생각할 것이다.

마을아르페의 ‘마을 아키비스트’는 마을 사람들의 삶과 마을에서 벌어지는 일이 가치가 있음을 일깨워주고 함께 기록화 전략을 수립할 것이다. 삶을 아카이빙하고 마을을 아카이빙 하는 것에 매진할 것이다. 그래서 마을 아키비스트는 “활동의 결과물을 챙기는 소극적 방식에서 장소, 건물, 시설, 절차(이벤트 및 활동의 시작~끝, 사람들의 감정, 의견을 대상으로 삼는 적극적 기록화를 시도할 것이다. 담당자를 지정해서 기록을 위한 기록과 같은 딱딱한 방식이 아니라 모두가 기록화에 참여하는 놀이로 승화할 것이다. 기록하는 행위 자체가 이벤트가 된다. 어떤 행사가 있을 때 행사를 기록화하고, 행사 이벤트로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행사사진, 영상, 그림, 에세이 등 가능한 모든 형태의 아카이빙을 제시하여 스스로 참여하게 할 것이다. 모여진 기록들은 다음 행사가 있을 때 도움이 되고 책으로 만들어져 출판이 될 것이다.”(박혜진, 2008). 이처럼 삶은 물질적 삶 그 자체와 더불어, 그리고 동시에 문화적 삶으로 아카이빙이 될 수가 있다. 또한 마을 아키비스트는 ‘사적인 것들’이라 기록화가 되지 못한 것들과 마을 정체성을 아카이빙 하는 방법론에 주목할 것이다. 그래서 “농부가 논에서 벼를 만질 때 무엇을 어떻게 기록화해야 하는지 의논하고, 지역문화와 환경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록을 어떻게 공개하고 활용해야 하는지, 마을 주민들의 생활사를 표현하는 기록을 전시하는 것을 기획해야 하는지, 지역사회를 연구하고 체험하는 교육적 기능을 방법론으로 정립하려고 노력할 것이다.”(충남대 기록관리학대학원 마을아카이브즈 구축

팀, 2007). 이처럼 마을 아카이스트는 자신이 매일 만나는 한 인간의 생애를 기록화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종신토록 형이상학적 아카이빙을 나눌 것이다. 불가능? 서로 기억하기 마을 아카이빙을 시작하는 성미산 마을 아카이브 설립운동, 마을의 유희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전환하고 마을 사람들 개개인의 역사가 담긴 기록물을 채워가는 매화동 마을회관 재생 프로젝트 등등 여러 곳에서 시작된 일이다. 불가능을 말하기에는 이미 늦었다.

마을아르페의 ‘마을역사가’는 마을 사람들과 역사적 삶을 나눌 것이다. 마을역사가는 마을 사람들과 더불어 개인의 삶을 역사로 표현할 것이다. 마을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과 개인적인 것들을 말하고 대화하고, 공감하고 인정하고 지지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역사로 말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개인적인 것들에는 상처가 깊이 아로새겨져 있다. 슬픔이 있고 드러낼 수 없는 억압도 있다. 상처는 사적인 것으로 밀쳐질 수 있다. 그러나 마을역사가는 상처가 드리운 그림자에서 황금을 발견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또한 마을역사가는 마을을 형성하는 물질적 조건들의 역사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역사가가 되어 미시사를 쓰고 여성사를 쓰고 일상사를 쓰다보면 역사가보다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더 말해야 할 것이 많지만 이상으로 마을아르페가 어떻게 운영이 될지 자락을 하나 펼쳐보았다. “영원히 여성적인 것이 우리를 이끌어 올리도다.” 파우스트에 나오는 마지막 구절이다. 이 구절처럼 여성적인 것은 우리를 ‘이 세상 밖 어딘가’로 한 없이 인도할 것이다. 이질적인 것들을 수용할 때 태산이 되듯이, 작은 것들을 막지 않고 받아들이는 강물만이 大洋에 이르는 여정을 마칠 수 있다. 여성적 풀무간은 태산을 이룰 것이고 대양에 닿을 것이다.

3.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1) 새로운 마을운동의 구심점

한 때 분당이나 일산 같은 신도시를 베드타운이라 불렀다. 잠만 자는 곳이라? 우리가 어렸을 적 알고 있던 그런 전통적 마을과는 다르다. 비록 가난했지만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전통적 마을은 서로가 서로를 알고 친밀하게 지내는 곳이며 인간다움이 있는 곳이었다. 그러나 급격한 산업화와 국가의 확대로 도시는 확장되고 농촌은 폐쇄화된 지 오래이다. 도시는 낯선 존재들만이 배회하는 삭막한 곳이 되었고 농촌은 도시화의 여파로 노인들만이 사는 곳이 되어 버렸다. 이것은 분명 20세기 한국 현대사의 암울한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들어 새로운 ‘마을운동’이 일어나고 있어 주목을 끈다.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곳은 충남 홍동면의 마을운동, 마포두레협동조합의 도시마을운동 등이 아닐까 싶다. 최근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펼치는 마을운동이 펼쳐지는 봉하도 주목할 만하다 하겠다. 이들은 전통적 마을 개념에만 안주하지 않고 20세기 한국현대사의 변화도 적극 수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새로운 마을운동에 대해 세세하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이러한 흐름의 실질적 구심점을 언급하는 것도 대단히 만족스러운 일이다.

마을은 사람들이 거주하며 서로에게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적 단위이다. 도시공동체 대안운동을 펼치는 마포두레협동조합에서는 ‘반경 2km 이내’의 지역을 마을단위로 여긴다. 서로가 친밀하게 서로 알고 지내려면 그 정도가 적절할 것이다. 인간의 삶에서 친밀함만큼 중요한 것은 없을 것이다. 알면 사랑한다는 말이 있다. 서로가 서로를 잘 알면 그만큼 친밀해지고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온 역사는 친밀함을 키워온 역사이다. 반면 친밀함에서 멀어질 때

우리는 비인간적이라고 본다. 우리가 ‘비정한 세계’라든가, 이제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힘들게 되었다거나, 자본주의의 냉혹함을 말할 때, 대체로 친밀함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 작은 학교를 지향하는 사람들도 이 점을 강조한다. 예컨대, 풀무학교(고등부)는 전교생이 100명을 넘지 않는다. 이것은 1958년 개교 이래 철칙이다. 100명을 넘어서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서로가 서로를 알기를 포기한다고 한다. 마포 성미산 마을의 ‘반경 2km 이내’는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친밀함만으로는 마을이 성립될 수 없다. 마을은 자립해야 하며 자치가 되어야 한다. 한 개인에게 자립과 자치의 토대는 지식, 문화, 직업, 집과 가족이 될 것이다. 마을에도 ‘마을지식’이 있어야 하고, ‘마을문화’가 있어야 하고, ‘마을경제’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물리적 공간으로서 마을’이 있어야 하고, ‘구성원으로서 마을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마을이 국가 시스템에 의탁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으려면 자립과 자치의 토대를 갖추어야 한다. 현재의 행정구역은 일제 식민지시기에 식민통치를 목적으로 재편된 것이므로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다. 그러나 편의상 말하자면, 현재의 ‘읍면동’ 단위가 공간적 의미에서 최소 규모가 될 것이다. 마을의 자치를 위해서는 지적 기반, 경제적 토대, 문화적 토양이 있어야 한다. 지적 기반이란, 학교, 책, 지식인 등을 말한다. 경제적 토대란 농업, 협동조합, 지역화폐, 지역에너지 정도는 최소조건이다. 문화적 토양에는 도서관, 출판사, 기록관, 공연장 등이 있어야 한다. 이 정도 규모가 되려면 적어도 읍면동 규모는 되어야 한다. 또는 영국의 자연주의 마을인 토트네스의 경우처럼 중소도시 규모로 확대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참조할만한 사례가 되는 것은 충남 홍동면이 아닐까 싶다. 홍동면은 1958년부터 ‘마을역사’가 시작되었다. 대안학교 원조로 널리 알려진 풀무학교(고등부)가 1958년에 문을 열면서 역사가 시작되었다. 2002년에는 전문대학이 생겨 마을대학이 모습을 드러냈다. 1970년대

중반부터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유기농업을 시작했으며 지금은 오리농법으로 유명하다. 흥동면에는 여러 형태의 협동조합이 있다. 1970년대부터 본격화된 생산자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이 대표적이다. 지역화폐와 지역에너지는 현재 진행형이다. 요즘은 통나무집 짓는 곳과 함께 통나무집을 짓고 있다. 최근에는 마을도서관 건립운동을 하고 있다. 또한 마을에는 그물코라는 마을출판사가 있고 서점도 있어 마을의 지적인 삶을 출판하고 있다. 마을원예팀에 의해 새로운 개념의 원예(organic garden)가 시도되고 있다. 멀지 않은 날, 마을은 온통 꽃과 작물로 뒤덮일 것이다. 마을 공예방, 마을 목공실, 마을농업연구소, 마을카페 등이 사람들을 반긴다. 유기농업 반찬가게가 있고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유기농업으로 급식을 한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풀무학교와 풀무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있었다. 사람들은 실질적이라고 하면 경제적 조건을 먼저 떠올릴 것이다. 물론 경제적 조건은 매우 중요하고 풀무의 역사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러나 여기에 그칠 이유는 없다. 지난 50년 동안 진행된 흥동면의 ‘새마을운동’의 역사는 교육, 문화 등과 같은 문화적 조건들이야말로 실질적 조건임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마을아르페는 새로운 마을운동의 실질적 구심점이 될 것이다

2) 인문적 삶의 구심점

마을아르페는 마을 중심에 있으면서 사람들 삶의 문화적 토양이 되고 마을역사와 마을문화의 풀무간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아르페는 사람들의 삶에 적지 않은 변화를 몰고 올 것이다.

첫째 삶의 중심이 바뀔 것이다. 새마을운동이 한창일 때 마을마다 마을회관이 들어섰지만 과연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았는지 여전히 의문이다. 마을아르페가 생겨 제 역할을 한다면, 그 옛날 함께

모이던 느티나무·우물가·빨래터·서당 ... 대신 삶의 중심이 될 것이다.

둘째, 사람들의 지적 욕구를 채워줄 것이다. 학교를 졸업하면 공부 는 끝이 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워야 하고 새로운 것을 취해야 한다. 만약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마을도서관에 가서 글을 쓰고 책을 읽거나 한다면 어떨까? 집안일을 마친 전업주부가 공부하는 곳, 퇴근 후의 직장인이 집에 와서 밥을 먹고 공부하는 곳, 다양한 도서가 비치되어 누구나 독서를 할 수 있고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이런 마을도서관은 사람들의 지적인 욕구를 채워줄 것이다.

셋째, 기록과 역사가 영속적으로 보관되며 다양한 정보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다. 어떤 마을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다. 그러나 그것을 말해줄 수 있는 기록은 없거나 곳곳에 떨어져 있어 보기 힘든 경우가 많다. 마을아르페는 사회활동을 위한 풍부한 정보, 다양한 지적 활동의 실증적 데이터, 역사서술의 사료가 될 것이다. 우리는 잘 안다. 굳이 군더더기를 붙일 이유는 없다. 위안부의 삶에 위안부 기록이 없다면, 그것과 더불어 시작되는 역사가 없다면, 그것과 더불어 시작되는 사회적 담론과정과 기억과정이 없다면 위안부는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한반도에서 사람들이 마을을 이뤄 산 것은 까마득히 오래되었지만, 마을 기록이 온전히 남아 있는 곳은 드물다. 왕과 국가의 기록이 남아 있는 것에 비한다면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

풀무학교 설립자인 이찬갑은 이런 말을 했다. “지역사회에 농민 기술자, 농민 과학자, 농민 교사, 농민 시인이 우글거려야 해.” 이들을 ‘마을지식인’이라 부를 수 있다면, 마을지식인이 가능하려면 마을아르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토양이 없는 생명체는 상상할 수 없다. 새로운 공동체에 새로운 문화가 싹트려면 문화적 토양이 필요할 것이다. 마을아르페는 문화적 토양이다. 언제부턴가 몇 몇 곳에서 마을아르페를 시작하고 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문화적 토양에 관심을 가지고

사유할 때가 되었다.

4. 시사점은 무엇인가?

마을아르페가 기록학계에 던져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여기서는 두 가지 정도를 언급하겠다.

첫째, 공공기록법과 대통령기록법에 언급되어 있지만 요원한 일로 비춰지는 개별대통령기록관과 기초자치단체 기록관, 기타 공공기관 기록관의 대안이 될 것이다. 대통령이 거주하는 봉화 같은 곳에서 마을아르페를 만든다면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기초자치단체 기록관의 경우도, 공공도서관, 박물관, 기록관 등을 마을아르페 개념으로 추진하면 가능할 것이다. 시군구 도서관의 입장에서는, 도서관이 명실상부한 문화적 중심이 되기 때문에 ‘국가도서관 시스템’에서 벗어나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의 질적인 도약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군구 기록관의 입장에서는, 국가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록을 그 곳에 둔다면 국가의 기록을 가져다가 구색을 맞출 수 있을 것이며 ‘국가기록 관리체계’(National Archiving System)에 종속되지도 않을 것이다. 내셔널 아카이브가 국가를 만드는 데(Nation building)에 기여를 했듯이, 지역의 정체성 형성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록학관리 분야 종사자들(대학원생, 졸업생 등도 포함)에게 진로를 모색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기록관리 종사자들에게 마을아르페는 새로운 영역이 될 수 있다. 기록학계는 조건이 좋다. 모인 구성원들의 학문적 배경이나 기록관리의 담론적 토대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기록학, 문헌정보학, 역사학, IT 등 다양한 학문적 배경과 도서관, 기록관, 역사관, 시스템 업체 등 다양한 직업적 배경은 이질적 풀무간 운영의 가능성의 조건이 될 수 있다. 마을아르페에 관심을 둔 사람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직업교육을 인문학적 맥락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물론 기록학 대학원 교육이 ‘직업교육’에서 ‘희망의 인문학’ 공부로 재편되면 좋겠지만, 마을아르페가 전부가 될 수 없고 국가 풀무간 영역도 중요하므로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이다. 다만, 대학원 과정에서 커리큘럼의 한 영역에 마을아르페를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마을아르페는 직장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차원의 문제이기도 할 것이다. 어느 쪽에 비중을 두든 그건 별개의 문제이긴 하나, 후자를 선택하는 사람이라면 국가 시스템에 들어가려고 애쓰기 보다는 마을에서 전문성을 살리며 성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처음에는 두 잡(Two jobs)이 현실적이며 마을아르페 자체를 새로 시작하는 것이라면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그저 상상이라 생각된다면, 또는 그저 그런 미래에 불과하다고 생각된다면 흥동마을, 성미산마을 등에 가보기를 권한다. 영국 자연주의 마을 토트네스는 한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로 다룬 적이 있다. 웹상에서 볼 수 있다. 아직에 절망할 때 이미 와 있는 미래를 보라는 한 시인의 권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을아르페는 현실에 깊이 개입하면서도 형이상학적이다. 이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또 다른 세계에 어느 덧 도달할 것이다. 그 곳에서 고민했던 흔적들로 채워진 것을 목도하고 또 다른 형태의 품위 있는 삶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국가에서 마을로 돌려 ‘마을과 더불어 시작되는 새로운 문명’을 말해야 한다. 상이하고 이질적인 지적 배경을 가진 ‘인문주의자들’이 연대하여 인문학적 전망을 지닐 수 있다면 울타리가 넓혀지는 것은 자명한 일일 것이다. 맹자의 주장처럼 울타리를 넓히면 가축을 매어둘 필요가 없다. 우리는 보다 자유로워 질 것이다. 국가 단위의 거창한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되지 않더라도, 마을아르페는 평범한 사람들의 작은 행복에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마을 아카이브즈 또는 마을기록관(지역기록관)

- 박혜진, 2008, 『마을 아카이브 사례조사』
- 유창복, 2008, 『기억과 기록』 (2008.3.20 마포연대 기록과 기억 발제문)
- 충남대 기록관리학과 마을아카이브즈 구축사업팀, 2007, 『풀무관 설립방안을 위한 최종보고서』
- 사이타마현시정촌사편찬연락협의회 지음·박지태 옮김, 2004, 『지역문서관의 설립』, 한울
- 안도 마사히토(安藤正人) 지음·이애란 옮김, 2000, 『지역문서관리』, 아세아문화사

2. 마을운동

- 풀무교육 5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2008, 『다시 새날이 그리워』 (1~3)
- 손정목 지음, 2007,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1 - 서울 격동의 50년과 나의 증언』, 한울
- 유창복, 2007, 『나의 마을살이 10년-이제 마을하자!』
- 이영남, 2007, 『푸코에게 역사의 문법을 배우다』, 푸른역사
- 조한혜정 외 지음, 2006, 『가족에서 학교로, 학교에서 마을로』, 또 하나의 문화
- 로널드 B. 맥케이브 지음·오지은 옮김, 2006, 『도서관, 세상을 바꾸는 힘 - 도서관과 사서의 위기 극복을 위한 철학적 고민』, 이채
- 마하트마 K 간디 지음·김태인 옮김, 2006,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 녹색평론사

- 에벤에서 하워드 지음·권원용, 조재성 옮김, 2006, 『내일의 전원도시』, 한울
- 존 에이브램스 지음·황근하 옮김, 2005, 『사우스 마운틴 이야기 - 세상을 행복하게 만든 작은 회사』, 산티
- 요시다 타로(吉田太郎) 지음·안철환 옮김, 2004, 『생태도시 아바나의 탄생-작은 나라 쿠바의 커다란 도전』, 들녘
- E. F 슈마허 지음·이상호 옮김, 2002, 『작은 것이 아름답다 : 인간중심의 경제학』, 문예출판사
- 피터 로세트(Peter Rosset), 1994, 『녹색평론 선집2』(2008년 간행), 녹색평론사

3. 정부보고서 (기록관리혁신, 작은 도서관)

- 정부혁신위원회, 2008, 『기록관리백서』
- 국가기록원, 2007,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운영 지원 연구』(1-2권)
- 국립중앙도서관(사)문화사회연구소, 2007, 『작은도서관 조성평가』
- 문화관광부, 2006, 『공공도서관 정책현황과 발전방안』(2006년 대통령보고서)
- 국립중앙도서관, 2006, 『작은도서관(문고포함)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ABSTRACT

Essay on the Community Archpe

Lee, Young-Nam

Community Archpe is <Book, Archive, History and Foundation of Smithy>. Community Archpe is as close as a kind of a complex of culture space or community center which puts individuals and small community together with culture soil in a central position. For example Community Archpe can include community library, community archive, community historical center, community recovery center, community commencement of an enterprise center, etc. We need small library, archive and historian rather than big scale institution and professional system to take care of culture soil which belongs to an individual and community.

Community Archpe is located in coordinates of two intention points. First intention is, a 'Heterogenous Smithy'. Heterogeneity deals with Community Archpe's life. Second intention is, a 'Feminine Smithy'. Community Archpe can be a recovery community when we are in the recovery context, which understand and support a person through archives and history.

Then, what can Community Archpe do? First, it can be a new movement of the community. Second, it can also be a centripetal point of classic life. Community Archpe surly locates in the central of Community. Therefore, it will be a cultural literary soil and be a smithy of community history and culture. Thus Community Archpe will change a lot of things on people's life.

Community Archpe will be a small happiness to ordinary people, even though it is not a state organ realizing large values.

Key words : Community Archives, Presidential Archives, Local Archives,
Small Scale Library